Stabat Mater

- □□

정보

개요
곡명: Stabat Mater, FP 148
작곡가: Francis Poulenc (1899–1963)
텍스트: 전통적으로 Jacopone da Todi에게 귀속되는 중세 라틴어 시퀀스
장르: 소프라노 독창, 5성부 혼성합창 (SATBarB), 관현악을 위한 종교음악
대상 범위: 12악장 전곡
IMSLP: Stabat Mater, FP 148

Wikipedia: Stabat Mater (Poulenc)

Stabat Mater는 Francis Poulenc이 1950–1951년에 작곡한 라틴어 시퀀스 설정으로, 십자가 아래 선 성모의 고통과 신자의 간구를 12개의 짧은 악장으로 나눈 작품이다. Poulenc은 화가이자 무대미술가인 Christian Bérard의 죽음 뒤 처음에는 레퀴엠을 생각했으나 , Rocamadour의 성모에게 친구의 영혼을 맡기는 중재 기도로 이 텍스트를 택했다고 회고했다. 1951년 6월 13일 Strasbourg에서 초연되었고 , 소프라노 독창은 전체 악장에 계속 등장하지 않고 VI, X, XII를 중심으로 합창 사이에 개인적인 기도를 연다.

출판 정보와 작곡 배경

Poulenc은 1950년 8월 말에 작품을 시작했고, 1950년 10월 편지에서 약 35분의 음악을 썼으며 관현악을 남겨 두었다고 알렸다. 서지 자료는 작품을 1950년 또는 1950–1951년으로 적으므로, 이 편지의 작업 단계와 1951년 초연 준비를 하나의 완성일로 합치지 않는다. 초판은 1951년 Rouart, Lerolle & Cie.에서 출판되었다

.

Poulenc의 작곡가 회고를 소개한 France Musique는 그가 Bérard를 위한 레퀴엠이 지나치게 장중하다고 느껴, 성모의 중재를 통해 친구의 영혼을 Rocamadour에 맡기고자 Stabat Mater 를 선택했다고 전한다. Harmonia mundi가 전하는 Poulenc의 표현인 “절망 없는 레퀴엠 ”은 이 작품의 추모와 구원 지향을
압축하지만 , 작품을 레퀴엠으로 분류하거나 Bérard를 위한 미사로 바꾸어 부르는 근거는 아니다.

소요 시간

IRCAM과 IMSLP의 악보 ·작품 정보는 평균 약 35분을 제시하고, 일부 녹음은 30분 안팎 또는 그보다 짧다. 지휘 템포, 악장 사이의 간격, 녹음 편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곡은 약 30–35분으로 잡는 편이 적절하다. 작곡가가 편지에서 말한 “35분 ”은 작업 당시의 자기 평가이며, 모든 공연의 고정된 시간은 아니다.

편성

성악은 소프라노 독창과 5성부 혼성합창 (SATBarB)으로 구성된다. 합창이 라틴어 시퀀스의 대부분을 맡고, 소프라노는 VI Vidit suum, X Fac ut portem, XII Quando corpus 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이 배치는 독창이 계속 이어지는 협주곡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사이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열리는 구조를 만든다.

관현악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또는 3,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또는 3,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또는 3, 콘트라바순 ,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하프 2, 현악으로 기록된다. 기관별 목록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의 겸주와 세부 수량을 다르게 적으므로, 실제 연주에서는 선택한 총보의
편성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프와 보조 목관은 느린 악장에서 독창과 합창 사이의 투명한 공간을 만드는
색채 재료로 사용된다.

텍스트와 기도 구조

Stabat Mater 는 미사 통상문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성모의 고통과 그 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자의 청원을 다루는 별도의 시퀀스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Jacopone da Todi에게
귀속되지만 , 이 귀속은 중세 전승의 설명으로 남겨 두며 단일한 저자 전기로 확장하지 않는다. Poulenc은 긴 텍스트를 짧고 대조적인 악장으로 분절해 탄식, 질문, 동정, 간구, 구원의 청원이 빠르게 교대하도록 만들었다.

12악장 구성

I–IV. 성모의 고통을 바라보기

I. Stabat mater dolorosa (Très calme)는 십자가 아래 선 성모의 고통을 절제된 합창으로 연다. II. Cujus animam gementem (Allegro molto–Très violent)은 성모의 영혼을 칼이 꿰뚫는다는 텍스트를 빠르고 격렬한 합창으로 바꾸며, 첫 악장의 정적 뒤에 신체적 고통을 갑자기 드러낸다. III. O quam tristis (Très lent)는 투명한 합창과 긴 호흡으로 깊은 슬픔을 묵상하고, IV. Quae moerebat (Andantino)는 앞선 정적과 다음 질문 사이를 부드러운 탄식으로 연결한다.

V–VI. 질문과 개인적 시선

V. Quis est homo (Allegro molto–Prestissimo)는 “누가 슬퍼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을 급한 합창의
추진력으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VI. Vidit suum (Andante)에서는 소프라노가 처음 두드러진다 . 아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본다는 텍스트가 집단적인 합창의 시선에서 떨어져 나온 개인적 기도로 바뀌며, 초연 소프라노 Geneviève Moizan이 이 악장을 맡았다.

VII–IX. 신자의 참여를 청하는 간구

VII. Eja mater (Allegro)는 성모의 고통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청하고, VIII. Fac ut ardeat (Maestoso)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IX. Sancta mater (Moderato–Allegretto)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마음에 새겨 달라는 중간 속도의 호소다. 세 악장은 슬픔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신자의
참여와 내적 변화를 청하는 기도로 방향을 전환한다.

X–XII. 함께 짊어지는 수난과 구원

X. Fac ut portem (Tempo de sarabande)은 사라방드풍의 느린 걸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게 해 달라고 청하며 소프라노가 다시 중심에 선다. XI. Inflammatus et accensus (Animé et très rythmé)는 심판의 날에 성모의 보호를 청하는 긴장된 합창이다. XII. Quando corpus (Très calme)는 죽음 뒤 영혼이 낙원의 영광을 얻게 해 달라는 마지막 기도와 Amen 으로 시작의 애도를 조용한 신뢰로 정리한다.

초연과 초기 수용

세계 초연은 1951년 6월 13일 Strasbourg Festival에서 Geneviève Moizan, Chœur de Saint-Guillaume, Strasbourg 시립 관현악단, Fritz Münch의 지휘로 열렸다. Strasbourg 초연 뒤 Robert Shaw가 이끈 1952 년 4월 27일 Carnegie Hall 공연은 미국 초연으로 기록되며, 이 공연은 작품이 미국 합창계에 들어간 초기 경로를 보여 준다. 초기 수용과 New York Critics’ Circle의 합창 작품상 기록은 작품의 역사적 반응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Poulenc의 작곡 의도를 증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주요 자료

Francis Poulenc 공식 전기
France Musique, 1951년 Strasbourg 창작 기록
IRCAM, Stabat Mater
Chœur de Saint-Guillaume, 뉴욕 초연 회고
Harmonia mundi, Stabat Mater
SLSO, Poulenc 프로그램 노트